

〈일반논문〉

清朝의 北京遷都와 盛京地域*

임 경 준**

—〈목차〉—

- I. 머리말
- II. 大清의 入關과 八旗·漢人降將의 이주
- III. 盛京 지역 통치체제의 재편과 ‘遼東招民開墾令’
- IV. 康熙帝의 撤藩 논의와 盛京地域 生計問題
- V.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644년에 단행된 北京遷都 이후 清朝의 만추리아 정책과 전개양상을 특히 盛京 지역에 초점을 맞춰 고찰하는 데 있다. 주지하듯이 清朝는 16세기말 통구스계의 주선~만주인에 의해 건설된 국가로 당초 만추리아 일대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국가였다. 1644년 清朝가 산해관을 돌파하여 明의 수도 北京에 입성하는데 성공하자 北京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동시에 八旗의 이주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원래 盛京에 거주하고 있던 旗人과 그 家屬·奴僕의 대부분이 北京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 그 규모는 최대 100만명에 달했으리라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漢地 정복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盛京 일대에 주둔하던 吳三桂를 비롯한 漢人降

* 본 연구는 공익재단법인 리소나 아시아·오세아니아 재단(リソナアジア・オセアニア財團)의 조사연구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동경대학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

將의 병력까지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漢人降將 휘하의 군사와 그家屬 약 20만명까지 추가로 빠져나감으로써 盛京 지역은 거의 모든 인구의 유출에 직면하게 되었다.

盛京은 제국이 발흥한 發祥之地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였다. 그런 까닭에 淸朝는 北京遷都에 발맞추어 즉각적으로 盛京 지역의 지배체제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盛京을 陪都로 지정한 뒤 留守 부대인 駐防을 설치하고 그 사령관으로서 盛京將軍을 개설하였다. 盛京將軍이 盛京 일대의 駐防에 소속된 旗人を 관할하였다면, 행정단위로서는 설치된 府·州·縣에서는 民人을 통치하는, 이른바 旗民制가 실시되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遼東招民開墾令을 반포하였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戶籍에 등재되지 않은 流民이 급증하며 치안문제가 대두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 본토로 진군한 漢人 출신 降將들은 反淸 세력을 토벌한 공적을 인정 받아 藩王에 봉해져 이후 三藩이라 불리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平南王 尚可喜가 주둔지인 廣東을 떠나 盛京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는 上奏를 올린 것을 계기로 三藩의 동향은 盛京 지역과 다시 긴밀하게 맞물리게 된다. 三藩 세력이 귀환하고자 하는 지역이 盛京 일대였기 때문에 徹藩論의 핵심 의제는 三藩과 같은 대규모 집단의 이주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盛京 지역의 生計 문제에 집중되었다. 즉 遼東招民開墾令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불러 모은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새롭게 이주할 三藩 세력에 의해 빼앗길 우려가 조정 내부에서 국가적 현안으로 제기된 것이다.

이처럼 盛京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大清의 초기 정책은 漢地 지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제국의 發祥之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주제어

淸朝, 만주인, 盛京, 遼東招民開墾令, 三藩

I. 머리말

유라시아 대륙 동부의 주요부를 차지하는 '만추리아 Manchuria¹⁾' 일대는 일반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하위 범주로서 '滿洲'라는 지명으로 통칭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지역은 퉁구스계의 민족집단Tungusic peoples이 주로 활동해 왔던 무대로 중국본토China proper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몽골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12세기초 퉁구스계의 수렵민인 주선jušen(女眞/女直)인이 건국한 大金, 그리고 16세기말 그 일파 중 하나인 만주manju인(1635년 개칭)에 의해 건설된 제국 大清國Daicing gurun²⁾은 만추리아에서 발흥한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만추리아를 가리켜 흔히 '滿洲'라 칭하는 까닭은 바로 이 지역에서 발흥한 만주인이 스스로를 '만주'라 자칭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구체

-
- 1) 본고에서는 한국학계에서 이 지역을 가리키는 데 주로 쓰이는 '滿洲'라는 용어 대신 '만추리아'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滿洲'는 본래 만주인이 자신들을 가리키던 만주어 '만주Manju'의 한자 음차어에 지나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만주인 스스로 이 지역을 '滿洲'라 지칭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1945년 이전 일본학계에서 유행한 '滿鮮史'·'滿蒙史'에서 쓰인 '滿洲'라는 지역개념과는 지칭하는 범위와 대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中見立夫, 「地域概念の政治性」, 『「滿蒙問題」の歴史的構圖』, 東京大學出版會, 2013, 1~28쪽(原載: 『交錯するアジア [アジアから考える I]』, 東京大學出版會, 1993)을 참조.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퉁구스계의 민족집단이 활동해온 생활공간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만추리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당초의 국호는 만주어로 '만주 구룬Manju gurun(滿洲國)'이라 칭하면서 한자문명권에 대해서는 '後金'이라는 한자 국호를 사용하다가 1636(崇德元)년에 다이칭Daicing=大清이란 국호를 정식으로 채용하였다. 大清의 國號에 관해서는 神田信夫, 「滿洲(manju)国号考」, 『清朝史論考』, 山川出版社, 2005, 22~33쪽(原載: 『山本博士選曆記念東洋史論叢』, 山川出版社, 1972)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은 국호 개칭의 경위에 관하여 본고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문맥에 따라 '大清' 혹은 '清', '清朝'를 병용하도록 하겠다.

적으로 만주어의 manju를 漢字로 표기한 ‘滿洲’가 지명으로 정착된 것인데, 18세기에 大清의 궁정에서 근무하던 예수회 선교사들이 만주인의 故地인 이 지역을 ‘만주인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만추리아라 지칭한 것이 그 기원이라 알려져 있다.³⁾ 근대 이후 만주인 자신에 의한 국민국가 건설에 실패한 탓에 만추리아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국민국가에 분할 귀속되어 ‘邊境’ 혹은 ‘邊疆’이란 틀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형세가 자리잡기 전인 16~18세기, 특히 그 지배자였던 만주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역이야말로 제국의 발흥지로서 중시되었던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다.

일반적으로 만추리아의 영역은 ‘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국민국가의 강역을 전제로 설정된 ‘東北三省’ 즉 遼寧省·吉林省·黑龍江省으로 이루어진 三省의 관할구역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 三省의 연원이 일찍이 大清에 의해 관할부서로 설치되었던 盛京將軍·吉林將軍·黑龍江將軍에 있다는 점에서 미루어 보면 일정 부분 납득할 수 있는 견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 구별이 역사적으로 고정적이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清代에 吉林將軍과 黑龍江將軍의 관할 하에 있던 아무르 강(=黑龍江) 북부와 우수리 강 동부 일대는 현재 러시아령으로 귀속되어 있으며, 黑龍江將軍의 서부 일부는 내몽골자치구에 편입되어 있는 등 근대 이후에 새롭게 재편된 행정구역이 반드시 清代의 三將軍 체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지역 이해의 문제와 한계에도 불구하고 清代의 만추리아 통

3) ‘만추리아라는 지역개념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中見立夫, 「地域概念の政治性」; 同, 「東北/北東アジアはどのように、とらえられてきたか: 歴史認識における地域概念の問題」, 『「滿蒙問題」の歴史的構圖』, 東京大學出版會, 2013, 257~276쪽(原載: 『北東アジア研究』 7, 2004). 그리고 Elliott, Mark C.,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이 검토하고 있다.

치를 다루는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은 (1) '중국문명'을 중심축으로 하여 주변민족이 활동하던 지역 일대를 '邊境' 혹은 '邊疆'으로 파악하거나, 혹은 (2)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민국가의 강역을 전제로 하여 설정된 '東北三省'의 지역사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술하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⁴⁾ 이에 대하여 근래 만주인의 관점에서 大清 국가의 성격을 재고하는 新淸史 New qing history가 새로운 연구동향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 연구자인 엘리엇 Elliott은 만주인의 만추리아 인식을 개관하고 있어 특히 주목된다.⁵⁾ 뿐만 아니라 한국학계에서도 이와 같은 新淸史의 조류를 의식하면서 구범진, 김선민, 이훈과 같은 연구자들이 잇따라 관련 연구를 발표되고 있다.⁶⁾

본고에서는 '주변민족사'나 '동북지역사'라는 기존의 연구개념에 구속되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만주인의 관점을 중시하는 근래의 연구동향을 충분히 의식하면서 淸代의 만추리아 통치와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만추리아 중에서도 盛京將軍의 관할지역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 지역이 大清이 발흥한 根本之地로서 중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吉林將軍과 黑龍江將軍이 몽골이나 러시아와의 대외관계라는 외부적

4) 淸史研究會, 『滿洲史研究』, 東京:吉川弘文館, 2014의 연구사 정리를 참조. 그 외 구미학계의 주요성과로는 Lee, Robert H. G,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Harvard East Asian series 4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Isett, Christopher M, *State, peasant, and merchant in Qing Manchuria, 1644-186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등을 들 수 있다.

5) Elliott, Mark C, "The Limits of Tartary: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3, 2010, pp. 603-646.

6) 구범진, 「淸代 滿洲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동북아역사논총』 14, 2006, 77~107쪽; 김선민, 「옹정제의 盛京지역 통치」, 『淸史研究』 34, 2010, 143~177쪽; 이훈,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 京師 旗人の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 『史叢』 72, 2011, 267~305쪽.

요소가 중요했던 데 비해 盛京將軍은 大清皇帝와 만주인이 거주하는 수도 北京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침이나 만주인의 만추리아 인식을 보다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검토할 시기로는 大清이 山海關을 돌파하여 明의 北京에 입성한 ‘入關’이 이루어진 1644년부터 吳三桂의 거병으로 三藩의 亂이 발발하는 1673(康熙12)년까지의 약 30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를 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入關에 수반하여 北京遷都가 단행됨으로써 大清의 盛京 통치와 그 위상이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17세기 중반을 중심으로 大清 국가의 성격지역 통치가 어떻게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지에 대하여 만주인의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하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좇아 清代에 盛京將軍·吉林將軍·黑龍江將軍이 설치되었던 지역 일대를 만추리아라 통칭하면서 三將軍이 관할하던 지역을 각각 명칭을 따 盛京地域·吉林地域·黑龍江地域으로 지칭하도록 한다. 또한 紀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西曆을 사용하되 初出에 한정하여 大清의 年號를 병기[예컨대 1644(順治元)年]했지만, 번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양력으로 환산하지는 않았다.

II. 大清의 入關과 八旗·漢人降將의 이주

1644(順治元)年 李自成에 의해 明朝가 붕괴하자 大清의 섭정왕 도르곤 Dorgon은 山海關을 돌파하여 北京에 입성하는데 성공하였고, 즉시 北京으로의 遷都를 단행하여 만주인의 중원지배를 만천하에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盛京에 있던 順治帝를 北京으로 불러들여 새롭게 즉위식을 거행함으로써 大清皇帝는 몽골의 대칸에 이어 中華皇帝의 자리까지도 차지하게 된다. 뒤이어 李自成을 비롯한 流賊을 토벌하여 民生을 안정시키며, 군사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德化에 힘써 천하를 다스리겠다고 曉示함으로써 불안해하는 민심을 수습할 것을 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미 출정군으로서 北京에 입성한 기존의 八旗 뿐만 아니라 盛京에 남아 있던 留守 부대와 그 家屬·奴僕까지도 불러들이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八旗의 戶籍, 즉 旗籍을 가진 旗人은 원칙적으로 모두 盛京을 떠나 北京으로 이주하게 된 것이다.

일찍이 大清의 창업주 누르하치Nurhaci는 군용할거 상태에 있던 여러 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복속시킨 수장층들의 在地化를 차단하기 위해 자신의 居城으로의 이주를 강제하는 철저한 集住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강력하게 통제할 바 있다. 이러한 방침은 대외적 확장에 따라 새롭게 八旗로 편입된 세력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고, 1625(天命10)년 盛京이 수도로 확정되기까지 빈번하게 이뤄졌던 거성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되었다.⁷⁾ 도르곤 역시 遷都를 단행하는 과정에서 누르하치 이래의 集住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여 旗人과 거기에 딸린 家屬·奴僕까지도 전원 北京으로 이주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⁸⁾

7) 누르하치의 集住 정책에 관해서는 松浦茂, 「天命年間の世職制度について」, 『東洋史研究』 42-4, 1984, 제1장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곧이어 松浦茂, 「ヌルハチ[清·太祖]の徙民政策」, 『東洋學報』 67-3·4, 1986, 1~47쪽에서 專論하였다.

8) 遷都에 따른 八旗의 北京 集住에 관해서는 谷井陽子, 「清朝漢地征服考」, 小野和子編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6, 제1장이 상세하다. 한편으로 근래 박민수는 八旗의 北京 이주와 그에 따른 점령 정책에 대하여 관련 연구를 정력적으로 발표하고 있어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박민수, 「攝政王 도르곤의 北京 점령과 遷都의 실행」, 『明清史研究』 48, 2017, 455~501쪽; 同, 「清의 北京 遷都와 만주의 北京 移住」, 『明清史研究』 51, 2019, 313~355쪽.

그렇다면 당시 이주한 八旗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당시 淸側의 포고문에 따르면 “지금 皇上이 인솔해 가는 將士와 家口가 億萬 이상”⁹⁾이라고 있으나 이는 다분히 과장이 섞인 표현으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朝鮮側 기록에 따르면 “皇帝의 행차가 앞서가고 諸王·여덟 구사gūsa와 그 家屬의 輜重이 그 뒤를 이어서 도로에 가득 찼다”¹⁰⁾던지 “瀋陽[=盛京]의 농민들이 모두 北京으로 이사했으며, 山海關內에서 廣寧까지의 10여 日程 동안 남녀가 부축하고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혔다”¹¹⁾고 묘사하고 있어 入關한 인원이 상당한 숫자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北京遷都가 누르하치 이래의 集住 정책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한다면 원칙상 旗籍에 등록된 旗人과 그 家屬·奴僕은 모두 盛京을 빠져나갔으리라 생각된다. 1644년 入關 당시 旗人의 인구를 알 수 있는 사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安雙成에 따르면 1648(順治5)년에 시행된 호구조사(編審)에 八旗男丁의 총수가 34만6,931명이라 하므로 入關한 旗人의 최대숫자를 상정할 수 있다.¹²⁾ 谷井陽子는 安雙成의 수치 중 入關 후 八旗에 편입된 漢人 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을 감안하여 최대 壯丁 20~30만이 北京으로 이주하였으리라 추정하고 있다.¹³⁾ 그 외 張杰·張丹卉는 入關한 인원 총수를

9) 『世祖實錄』卷8, 順治 元年 9月 丁亥條: “今皇上攜帶將士家口, 不下億萬.”

10) 『仁祖實錄』卷45, 仁祖 22年 9月 辛卯條: “帝行在前, 諸王八高山及其家屬, 輜重繼之, 彌滿道路.”

11) 『仁祖實錄』卷47, 仁祖 24年 2月 壬辰條: “瀋陽農民, 皆令移居北京. 自關內至廣寧十餘日程, 男女扶携, 車轂相擊.”

12) 安雙成, 「順康乾三朝八旗丁額淺析」, 『歷史檔案』1983-2, 100쪽. 安雙成이 이용한 자료는 中國第一歷史檔案館에 소장된 1723(雍正元)년의 奏本인 「和碩怡親王允祥等奏爲查報順康年間八旗男丁數目事本」(雍正元年6월4일)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八旗滿洲의 男丁이 5만5,330명, 八旗蒙古의 男丁(차하르도 포함)이 2만 8,785명, 八旗漢軍과 臺를 지키는 漢人tai i nikan(臺尼堪)이 4만5,849명, 滿洲와 蒙古 휘하의 보오이boo(包衣)가 21만 6,967명이다.

13) 谷井陽子, 「清朝漢地征服考」, 小野和子編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6, 108쪽.

100만명 이상이라 보았고, 劉小萌은 北京으로 유입된 八旗 인구를 30만으로 보았으며, 郭松義는 家屬과 奴僕을 모두 합쳐 40만 전후로 보고 있다.¹⁴⁾ 종합하자면 八旗男丁이 20~30만, 그 家屬과 奴僕까지 포함했을 경우 100만 전후의 인구가 한꺼번에 盛京에서 北京 일대로 유출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盛京에서 유출된 八旗는 기본적으로 漢地 정복전의 출정군에 투입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실제로 도르곤은 入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지거Ajige를 시작으로 도도Dodo를 江南, 호오거Hooge를 四川, 지르갈랑Jirgalang을 湖廣으로 각각 출정시키는 등 대규모 漢地 원정군을 파견하고 있다.¹⁵⁾ 그러나 大清이 장악한 영역은 겨우 중국본토 전체중 1/3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치안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곳이 수도룩하여 언제든지 무장 폭동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였다. 더군다나 辮髮令과 같은 清側의 일방적인 복식 강요는 漢人 사대부층을 자극하였고, 마침내 清에 대한 저항운동을 재점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明의 잔존세력이 다시금 세력을 규합하여 南明 정권을 발족시키고 清에 조직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戰況은 점차 장기전으로 돌입하였다.

清은 南明 정권을 분쇄하기 위한 방편으로 明의 降將들을 동원하여 남방전선에 출병시키기로 결정한다. 明의 降將들은 紅夷砲와 같은 火器 활용에 숙달되어 있었던 데다가 明末清初 시기 明·清 간의 치열한 전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력 자체로도 清軍에 뒤처지지 않았다. 入關 이후 三順王~三藩이라 통칭되는 漢人 군벌인 吳三桂·孔有德·耿仲明·尚可喜가 대표적이다. 그중에서도 吳三桂는 부친인 錦州總兵 吳襄 때부터 遼西 일대에서

14) 張杰·張丹卉, 『清代東北邊疆의 滿族:1644-1840』,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5, 5~8쪽; 劉小萌, 『清代北京旗人社會』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101쪽; 郭松義, 「清代社會變動和京師居住格局的演變」, 『清史研究』 2012-1, 12쪽.

15) 入關 후 漢地에 출정한 宗室諸王에 대해서는 谷井陽子, 『八旗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5, 402쪽 및 卣1 참조.

착실하게 세력을 축적해 온 군벌이었다.¹⁶⁾ 淸朝가 吳三桂를 비롯하여 孔有德·耿仲明·尙可喜에게 본래 누르하치 일가에 한정된 특권이었던 王爵을 수여한 이면에는 이들이 가진 군사력에 대한 회유의 의미도 다분하였다.

淸은 1647(順治4)년부터 吳三桂를 비롯한 漢人降將들을 본격적으로 전선에 투입시키기 시작한다. 1646(順治3)년 10월에는 孔有德·耿仲明·尙可喜 등에게 명하여 盛京으로 돌아가 각기 병기와 마구를 정비하고 대기하다가 이듬해 4월 馬兵을 먼저 출발시키고 步兵이 뒤를 따라 北京으로 달려가게 하였다.¹⁷⁾ 吳三桂는 1648(順治5)년 4월에 錦州에서 漢中으로 이동하라는 명을 받았는데, 閏4월에 비로소 漢中으로 달려가 鎮守하였다.¹⁸⁾ 淸은 이런 방식으로 盛京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明의 降將들과 그 병력을 차례대로 투입시켜 反淸 세력과 대치해 나간다.

그런데 정벌군에 차출된 漢人降將들이 군사만이 아니라 그 家屬까지 데리고 진군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盛京 지역에서 본다면, 이는 入關을 전후하여 八旗에 소속된 인원 거의 전부가 이주한 데 이어 漢人降將들까지도 그 家屬을 거느리고 盛京 일대를 떠나게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656(順治13)년 11월에 禮部에서 上奏하기를,

永平의 寄學은 원래 遼東 15學의 生員의 숫자가 많은 까닭에 廩膳 120명을 설치하였는데, 근래 平西王이 四川과 陝西를 鎮守하니 諸生의 태반이[平西]王을 따라 秦中으로 들어가 원래 규정된 廩膳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지금 논의하기를 永平府의 寄學은 규정된 廩膳의 수를 40명으로 존치시키고, 40명을 遼陽

16) 明末 이래 吳三桂 일가가 遼西 일대에서 쌓아올린 군사적 기반이 降淸 이후에도 지속된 점에 관해서는 神田信夫, 「平西王吳三桂の研究」, 『淸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2005, 206~209쪽(原載: 『明治大學文學部研究報告 東洋史 第2冊』 明治大學文學部文學研究所, 1952)에서 지적하고 있다.

17) 『世祖實錄』 卷21, 順治2年 10月 戊申條.

18) 『世祖實錄』 卷38, 順治5年 4月 丁亥條.

府學으로 귀속시키소서.¹⁹⁾

라고 하여 吳三桂가 四川과 陝西을 鎮守하러 떠나자 諸生의 태반이 따라가면서 永平의 寄學²⁰⁾은 원래 책정된 인원에 미달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이 지역에서는 明·清 교체기부터 전투가 빈발했던 데다가 淸의 北京遷都에 의하여 이미 상당한 인구가 빠져나간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淸의 降將들을 동원하여 중원지역으로 진군시킨 淸의 조치는, 그렇지 않아도 인구 감소가 뚜렷해진 盛京 지역을 근간에서부터 뒤흔드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렇다면 당시 吳三桂를 비롯한 漢人降將들의 入關한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吳三桂와 孔有德·耿仲明·尚可喜의 병력 규모를 분석한 神田信夫에 따르면 그 수치는 대략 다음의 <표 1>과 같다.²¹⁾

<표 1> 入關한 漢人降將(三藩~三順王)의 병력 규모

降將名	니루 數	甲士 數	典據
吳三桂	42	8,400	『康熙雲南通志』卷13「兵防」
	52	10,600	『平定三逆方略』卷1, 康熙12년 7월 庚午條

19) 『世祖實錄』卷104, 順治13年 11月 戊午條: “寄學永平者, 原係遼東十五學生員數多, 故設廩膳一百二十名, 近平西王鎮守川陝, 諸生大半, 隨入秦中, 而原額廩膳, 不無太濫. 今議, 永平府寄學, 存原額四十名, 以四十名歸遼陽府學.”

20) 1644(順治元)年 8월에 도르곤은 順天督學御史 曹溶啓의 진언을 받아들여 遼東 등처의 15學을 고쳐 永平府에 부속시키고 敎官 3명을 설치하여 敎導를 분담시켜 經學에 밝고 행실이 바른 士人을 선발해서 그 임무에 충당시킨 바 있다. 『世祖實錄』卷7, 順治 元年 8月 乙丑條를 참조. 이처럼 타지의 學校를 永平府에 부속시켰기 때문에 寄學이라 불렀다. 盛京에서의 寄學 운영을 비롯한 교육체제 전반에 대해서는 叢佩遠, 『中國東北史 第四卷』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8, 1756~1781쪽; 李治亭 主編, 『東北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3, 548~551쪽에 상세하다.

21) 神田信夫, 「平西王吳三桂の研究」, 201~202쪽.

降將名	니루數	甲士數	典據
孔有德	15	3,100	『世祖實錄』卷44, 順治6년 5월 丁丑條 / 6月 戊戌條
耿仲明	11	2,500	『世祖實錄』卷44, 順治6년 5월 丁丑條 / 6月 戊戌條
尙可喜	12	2,300	『世祖實錄』卷44, 順治6년 5월 丁丑條 / 6月 戊戌條
總計	80	16,300	
	90	18,500	

大清에 투항한 漢人 무장과 그 군단은 八旗의 기초 조직인 니루(niru/佐領/牛錄)를 단위로 하여 재편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²²⁾ 주지하듯이 니루는 만주인 재래의 부락과 집단을 기초로 재편한 것으로 이후 포로나 투항자를 추가로 편입하는 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병력의 供出·賦役의 부과·旗籍의 관리를 비롯한 군사·행정단위로서 기능하였다. 그 구성원은 당초 壯丁 300인을 기준으로 하였다가 天聰年間(1627-1636)에 200인으로 줄어든 뒤 줄곧 200인을 유지하였는데, 壯丁은 니루 조직의 관리나 농지경작·수렵채집과 같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기도 하여 전투원인 甲士(uksin)로 차출되는 비중은 대개 1/3 정도였다.²³⁾

22) 神田信夫, 「平西王吳三桂の研究」, 200쪽에 따르면, 吳三桂 군단은 『世祖實錄』 卷 22, 1645(順治2)년 12월 乙巳條에 이미 八旗官制 중 하나인 護軍統領의 존재가 확인되고 있어 귀순 직후에 八旗官制로 재편되었으리라 추정된다. 이에 비해 孔有德·耿仲明·尙可喜를 비롯한 三順王 군단의 경우, 藤紹箴, 「清代“三藩”旗籍研究」, 『明代女真与滿洲文史論集』,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12, 259~260쪽(原載: 『蒙元史暨民族史論集』,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은 吳三桂 군단보다 다소 늦은 1647(順治4)년부터 1649(順治6)년 사이에 八旗官制가 도입되었으리라 본다.

23) 니루제의 연혁과 운용에 관해서는 張晋藩·郭成康, 『清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8, 215~223쪽과 增井寬也, 「清初ニル類別考」, 『立命館文學』 608, 2008, 111~133쪽 및 谷井陽子, 「ニルの構成と運營」, 『八旗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5, 147~202쪽(原載: 『天理大學學報』 223, 2010)을 참조. 甲士의 차출 비율은 『天聰八年檔』 9월 21日條 (302~303쪽)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1旗에 30니루를 넘지 않도록 하며 1니루는 壯丁 200인에 甲士 60

그런데 吳三桂를 비롯한 漢人降將의 경우 <표 1>의 니루당 甲士의 비율에서 보이듯이 1니루당 甲士가 200인에 달하고 있어 八旗와는 달리 니루당 甲士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神田信夫가 지적하듯이 吳三桂 군단은 壯丁 5인 중에서 甲士를 1인 차출하고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계산하면 壯丁의 숫자는 53,000인에 이른다.²⁴⁾ 여기서 壯丁은 성인남성만을 가리키는 것이니 그 家屬까지 더한다면 吳三桂 군단만으로도 入關한 인구수는 15만에서 20만에 달하리라 추정된다.

한편 孔有德·耿仲明·尚可喜 군단의 경우에도 니루당 甲士의 비율이 吳三桂 군단과 마찬가지로 약 1:200인 것을 알 수 있으나, 관련사료의 미비로 이들 세 군단의 壯丁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細谷良夫와 張士尊의 지적에 따르면, 1633(天聰7)년 孔有德과 耿仲明이 淸에 귀순했을 당시 官兵·家屬의 규모는 '8,014명'이었으며, 이듬해인 1634(天聰8)년에 尚可喜가 귀순했을 때의 官兵·家屬 규모는 '3,870여명'이라 한다.²⁵⁾ 따라서 귀순 당시 孔有德·耿仲明·尚可喜 세 군단의 규모는 약 '11,884명'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후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표 1>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 중에서 甲士의 비중은 7,900명이었다는 대체적인 추정치가 나온다. 吳三桂 군단에 비해 家屬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이들 군단이 皮島에 웅거하던 毛文龍 세력에서 분파한 뒤 遼西~山東 연안을 중심으로 이합집산을 반복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인으로 하는 定額이 제정되었다. 한편 楠木賢道, 『清初対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9, 149쪽은 大凌河遠征軍이 조직된 1631(天聰5)년의 동원 형태를 볼 때 明文化는 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미 1니루당 甲士 60인 선발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24) 神田信夫, 『平西王吳三桂の研究』, 209쪽.

25) 細谷良夫, 『後金國・清朝に來歸した漢人の様相』, 『中国: 社会と文化』 2, 1987, 46~47쪽; 張士尊, 『清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 1644-1911』,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3, 41~42쪽.

어쨌든 吳三桂를 비롯한 대표적인 漢人降將이 거느린 군사 규모는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적게는 니루80/甲士16,300명에서 많게는 니루70/甲士18,5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여기에 그 家屬까지 포함할 경우 15만에서 20만으로 추정된다. 즉 大清 정권이 漢人降將을 漢地 정복전에 본격적으로 배치하는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盛京 지역은 八旗 본대에 뒤이어 漢人降將 휘하의 군단까지 빠져나감에 따라 사실상 거의 모든 인구의 유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大清 정권은 北京遷都 이후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盛京 지역 통치체제를 재정비해 나갔던 것일까.

III. 盛京 지역 통치체제의 재편과 ‘遼東招民開墾令’

盛京(오늘날의 瀋陽)은 누르하치 만년인 1625(天命10)년에 수도로 정해진 뒤 1634(天聰8)년에 만주어로 묵던 호톤 mukden hoton, 漢語로 盛京城이라 정식으로 명명되었다. 1644년 入關에 의해 國都가 北京으로 옮겨감에 따라 누르하치와 홍타이지가 잠들어 있는 古都 盛京은 陪都(副都)로 지정되고 留守 부대인 盛京駐防이 설치된다. 이 盛京駐防의 사령관인 鎮守盛京等處總官(약칭하여 盛京總官)이 바로 盛京將軍의 기원이다.

大清 정권에게 盛京 지역은 제국의 發祥之地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 때문에 清側은 北京遷都의 일환으로 八旗 본대를 移住시키고 漢人降將을 중국본토로 투입하는 사업과 발맞추어 陪都로서 盛京 지역 일대의 통치체제를 재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內大臣 호로호이 Horohoi(何洛會)²⁶⁾를 盛京總管으로 임명²⁷⁾하고 駐

26) 호로호이는 正黃旗人으로 順治 초기의 도르곤 섭정기에 특히 활발하게 활약했던

防 각처에 八旗를 배치하였는데,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다.

<표 2> 1644년 盛京駐防에 배치된 八旗(단위: 員)

駐防城	城守官職	城守官名	滿洲協領	滿洲章京	蒙古章京	漢軍章京	합 계
盛 京	總 管	何洛會	8	32	8	8	56
	左翼梅勒章京	阿哈尼堪					
	右翼梅勒章京	碩 詹					
雄 耀	城守官	傅克納	—	3	—	1	4
錦 州	城守官	梭木拜	—	2	—	1	3
鳳 凰	城守官	拜格喀	—	2	—	1	3
寧 遠	城守官	額蒙格	—	2	—	1	3

인물이나 도르곤 사망 후 順治帝가 親政을 개시하자 親도르곤 파로 몰려 처형됨에 따라 출신 씨족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 인물이다. 다만 正藍旗 구사 어전 gūsa i ejen과 內大臣과 같은 중직을 두루 역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유력 씨족의 일원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호로호이의 활동과 실각에 관해서는 磯部淳史, 『太宗: 順治朝におけるグサ=エジェンとその役割』, 『清初皇帝政治の研究』, 京都: 風間書房, 2016, 제2절 (原載: 『滿族史研究』 9, 2010)에서 검토된 바 있다.

- 27) 구변진, 「清代 ‘滿洲’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81쪽은 호로호이의 盛京總管 부임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내대신은 이듬해 阿立哈大(alihada: 總管)로 개칭되었다가 순치 3년(1646) 5월에 다시 昂邦章京(amban janggin)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하여 內大臣이 總管으로 개칭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착오로 생각된다. 內大臣dorgi amban은 大清皇帝의 친위대인 侍衛hiya를 통솔하는 正一品 관직으로서 總管 직과는 다른 계통에 속하기 때문이다. 侍衛hiya의 官制 규정에 대해서는 杉山清彦, 「清初侍衛考」, 『大清帝國の形成と八旗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 188~190쪽(原載: 『東洋史研究』 61-1, 2003)과 常江·李理, 『清宮大內侍衛』, 北京: 故宮出版社, 2013, 27~31쪽을 참조. 실제로 호로호이는 『世祖實錄』 卷32, 順治4년 6월 甲戌條에 “內大臣何洛會”로 등장하고 있듯이 1647(順治4)년까지 內大臣에 재직하고 있었다. 또한 總管의 만주어명을 阿立哈daliha da로 보는 것은 叢佩遠, 『中國東北史 第四卷』, 1283쪽도 동일한데, 『世祖實錄』 卷133, 順治17년 3월 甲戌條에 “昂邦章京, 滿字, 仍稱昂邦章京. 漢字, 稱為總管”이라 하듯이 總管의 만주어명은 阿立哈daliha da가 아니라 昂邦章京amban janggin인 것을 알 수 있다. 阿立哈daliha da는 『大清全書』(108b쪽)에 의하면 “大學士”를 의미한다.

駐防城	城守官職	城守官名	滿洲協領	滿洲章京	蒙古章京	漢軍章京	합 계
興京	城守官	胡世塔	—	1	—	1	2
義州	城守官	愛湯阿	—	1	—	1	2
新城	城守官	丹達禮	—	1	—	1	2
牛莊	城守官	伊勒慎	—	1	—	1	2
岫岩	城守官	青善	—	1	1	—	2
東京	—	—	—	1	—	1	2
蓋州	—	—	—	1	—	1	2
耀州	—	—	—	1	—	1	2
海州	—	—	—	1	—	1	2
鞍山	—	—	—	1	—	1	2
廣城	—	—	—	1	—	1	2
總計	—	—	8	52	9	22	91

※ 근거자료: 『世祖實錄』 卷7, 順治 元年 8月 丁巳條.

張士尊에 따르면, <표 2>에 제시된 ‘章京’은 니루를 관할하는 관직인 니루 장긴(niru i janggin(牛录章京/佐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숫자가 모두 實職이라 한다면 당시 盛京 지역에는 총83개의 니루가 배치되었다고 보았다.²⁸⁾ 니루당 약200명으로 추산해보면 약 16,600명의 壯丁 가운데 甲士 약 5,500여명을 공출할 수 있는 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駐防에 배치된 니루는 戰時에 군사부대로 다시 편제된 조직이기 때문에 평시에 운용되는 행정조직상의 니루와 동일선상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²⁹⁾ 실제로 任桂淳이 지적하듯이 초기의 駐防은 군대가 주둔할 임시 거점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둔인원은 현장의 수요에 따라 가변

28) 張士尊, 『清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644-1911』, 52쪽.

29) 행정상의 니루가 戰時에는 전장의 작전상황에 맞추어 군대조직으로서의 니루로 재편된다는 점은 谷井陽子, 「ニルの構成と運営」, 『八旗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5, 제2장(原載: 『天理大學學報』 223, 2010)에서 관련사료를 제시하며 논증하고 있다.

적이었다.³⁰⁾ 그렇다면 당시 盛京 일대에 배치된 군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 谷井陽子は 八旗各旗마다 90명의 官兵을 징집하여 盛京에 배치하였다는 『初集』 兵制志의 기사에 근거하여 주둔한 군사가 1,000명 이하일 것으로 보고 있다.³¹⁾ 같은 시기인 1644년 중국본토에 설치된 西安駐防과 江寧駐防에 배치된 군사가 1,800명이고 杭州駐防이 1,000명이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盛京駐防의 군사를 대략 1,000명 내외로 보는 것은 합당한 추론이라 생각된다.³²⁾

이처럼 大清 정권은 자신들의 故地 만추리아를 통치하는 데에 總督·巡撫와 같은 중국본토에서의 통치기구가 아니라 駐防將軍을 설치하고 八旗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관할하였는데, 이는 1907(光緒33)년까지 지속되었다. 盛京駐防은 이후 盛京總管이 1662(康熙元)년에 鎮守遼東等處將軍(약칭하여 遼東將軍)으로, 다시 1665(康熙4)년에 鎮守奉天等處將軍(약칭하여 奉天將軍)으로 바뀌었다가 1747(乾隆12)년에 최종적으로 鎮守盛京等處將軍으로 개칭되어 이후 盛京將軍으로 알려지게 된다.

한편 관하의 民人 통치에 관해서는 1653(順治10)년에 먼저 遼陽府, 이어서 1657년에 이를 폐지하고 奉天府가 설치되어 장관인 府尹 이하 각관이 民政 계통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陪都로서도 1658년에 禮部를 설치한 것을 계기로 1691(康熙30)년까지 盛京五부가 설립됨으로써 國都에 준하는 체제가 정비된다. 즉 駐防으로서는 盛京駐防, 陪都로서는 盛京城, 민정기관으로서는 奉天府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³³⁾

30) 任桂淳, 『淸朝八旗駐防興衰史』, 北京: 三聯書店, 1993, 51쪽.

31) 谷井陽子, 「淸朝漢地征服考」, 108쪽 및 註12 참조. 『初集』 卷27, 兵制志2(제1책: 518쪽).

32) 西安駐防·江寧駐防·杭州駐防에 배치된 군사규모는 Elliott, Mark C., *The Manchu Way*, p.535 참조.

33) 이상의 盛京 지역 행정체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康熙盛京通志』 卷14, 職官과 『欽定盛京通志』 卷19, 職官의 기재내용에 의거하면서 叢佩遠, 『中國東北史 第四

이처럼 통치방침으로서 旗籍에 등록된 旗人은 駐防將軍 통할 하의 八旗官, 民籍에 등록된 民人은 府尹을 비롯한 民政官에게 관할되어 호적구분에 따른 이원적 통치체제, 즉 旗民制가 실시되었다.³⁴⁾ 즉 旗人을 관리하는 駐防과 民人을 관리하는 府·州·縣을 각각 설치하여 양자의 관할체계를 원칙적으로 분리한 것이다.

그러나 남방전선에서 反淸 세력과의 공방이 치열해지자 淸은 盛京總官 호로호이를 西安으로 출병시키는 등 이후에도 盛京에서의 유출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이에 따라 盛京駐防에 잔류한 八旗官兵의 숫자는 점차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흩어져 있는 民人을 수습하고 버려져서 황폐해진 토지를 다시 개간하는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역량은 턱없이 부족하였다.³⁶⁾

이에 따라 淸朝는 군사·행정기구의 정비와 함께 재건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盛京 지역은 노동력 고갈에 따른 토지의 황폐화가 현저해진 상태였으므로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재건사업의 급선무라 할만 했다. 淸朝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중원지역의 漢人 거주자들을 盛京 지역으로 불러들여 荒地를 개간하도록 장려했다. 이는 1654(順治 10)년에 반포된 ‘遼東招民開墾令’을 통하여 정식화되었는데, 『欽定盛京通志』 卷23, 戶口에 그 政令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³⁷⁾

卷], 1281~1296쪽을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34) 旗民制에 관해서는 塚瀬進, 『マンチュリア史研究:「滿洲」六〇〇年の社会変容』, 제5장을 참조. 한편 구범진, 「清代 ‘滿洲’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90쪽은 盛京을 비롯한 만추리아 일대가 旗民制의 외양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旗人 우위의 지배가 관철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駐防 체제’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35) 『世祖實錄』 卷17, 順治2年 6月 辛未條.

36) 叢佩遠, 『中國東北史 第四卷』, 1496쪽; 李治亭 主編, 『東北通史』, 502~503쪽.

37) 遼東招民開墾令에 관하여 선구적으로 주목한 연구는 稻葉岩吉, 『滿洲發達史』(增訂版), 東京: 日本評論社, 1935(初版: 大阪屋號出版, 1915)와 矢野仁一, 『滿洲近代史』,

順治 10년에 遼東招民開墾에 관한 則例를 정하였다. 民人 100명을 모집한 자에게 文官職은 知縣을 제수하고 武官職은 守備를 제수한다. 60명 이상을 모집한 자에게 文官職은 州同·州判을 제수하고 武官職은 千總을 제수한다. 50명 이상을 모집한 자에게 文官職은 縣丞·主簿를 제수하고 武官職은 百總을 제수한다. 모집한 民人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는 100명마다 각기 1급씩을 加資해준다. 모집된 民人은 1인당 달마다 口糧 1斗를 지급하고, 토지 1畹마다 종자 6升을 지급하며, 100명마다 소 20마리를 지급한다.³⁸⁾

이에 따르면, 중국본토 각처의 漢人을 모집하여 盛京 지역으로 데려온 이들에게는 그 인원수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고, 함께 따라 들어 온 이들에게는 종자·소를 비롯한 각종 농기구를 지급하여 정착하는 편의를 제공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실례가 어땠는지도 여러 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령 浙江 義烏 출신 陳達德의 경우는 民人 100명을 모집하였기에 遼東招民開墾令에 기재된 대로 遼陽知縣에 제수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知縣으로 재직하면서 開墾과 文教에서 성과를 거두어 民人들의 존경을 받았기에 사후에는 그 자식인 陳瞻遠이 知縣을 承襲하는 특혜까지 누렸다고 한다.³⁹⁾ 遼東招民開墾令의 세부 규정은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

東京: 弘文堂, 1941이다. 한편 중국학계의 연구사 정리는 李國亮·何世杰, 「清初遼東招墾史研究狀況分析」, 『蘭臺世界』, 2008-12下半月 참조. 한국어로 된 연구성과로는 유지원, 「봉금 그리고 이민과 개발」, 同編 『이민과 개발: 한중일 삼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49), 동북아역사재단, 2011이 대표적이다.

38) 『欽定盛京通志』卷23, 戶口: “順治十年, 定例遼東招民開墾. 有招至百名者, 文授知縣, 武授守備. 六十名以上, 文授州同·州判, 武授千總. 五十名以上, 文授縣丞·主簿, 武授百總. 招民數多者, 每百名加一級. 所招民每名月給口糧一斗, 每地一畹, 給種六升, 每百名給牛二十隻.”

39) 『冷廬雜識』卷5. “知縣有承襲爲之者. 國初遼陽甫置縣, 下令能招百人往者官之. 義烏 陳達德率百人, 以應授遼陽令, 勤墾闢, 招商賈, 興文學, 逾年政化大行. 卒於官, 其子瞻

지만, 民人을 모집하여 성경지역으로 데려오는 이에게 官職을 제수한다는 기본 방침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⁴⁰⁾

遼東招民開墾令을 실시함으로써 중원지역의 流民들이 계속해서 유입되었지만, 이미 장기간에 걸쳐 인구 이탈을 겪은 盛京 지역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복구시키기는 역부족이었다. 1661(順治 18)년 5월에 奉天府尹 張尙賢이 올린 上疏는 盛京 지역의 피폐화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삼가 天下大勢를 살펴보건대 京都(=北京)가 사람의 腹心이라면 盛京은 나무의 根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腹心은 이미 장건하고 충실해진지 오래이건만 根本은 여전히 텅 비어있으니, 신이 국가의 영구한 계책을 강구하여 進歩하고자 합니다. ……(奉天府의)내부 문제를 말한다면, 遼東에 城堡가 많다고는 하나 모두 거친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오로지 奉天·遼陽·海城 세 곳만이 겨우 府縣의 규모를 갖추었으나 遼陽과 海城 두 곳은 여전히 城池가 없습니다. 蓋州·鳳凰城·金州같은 곳은 수백 명을 넘지 못하고, 鐵嶺·撫順은 단지 유배된 자 여러 명이 있어서 경작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 흠뻑으로 도망한 이가 태반이고 약간 있는 家口는 이 땅에서 겨우 늘어 죽어 실로 지방에 이로운 것이 없으니, 이것이 遼東 내부 문제[腹裏]의 대략입니다. 遼西에 城堡도 많기는 하나 民人이 희소한데 오로지 寧遠·錦州·廣寧만은 民人이 모여 있으나 겨우 佐領 1員이 있을 뿐이어서 지방을 어떻게 관리할 줄 모르니, 이것이 遼西 내부 문제[腹裏]의 대략입니다. 遼東과 遼西의 내부 문제[腹裏]를 묶어서 살펴보면, 城堡가 황폐하고 기와와 담은 무너져 있으며 기름진 토지가 천리나 있어도 사람이 없어 의지할 곳이 전혀 없으니 이는 심각한

遠, 奉詔承襲, 蓋異數也. 時為諸生, 衰絰受職, 踵父之故轍, 而循序成功, 邑人感慕, 為之立祠.”

40) 이에 관해서는 叢佩遠, 『中國東北史 第四卷』, 1463~1468쪽이 상세하다.

내부의 근심입니다. 신이 밤낮으로 생각해 보니, 외부의 우환을 멎게 하려면 반드시 隄防을 계획해야 하고, 내부의 우환을 없애려면 반드시 근본을 충실히 하여 항구적인 책략을 도모하소서.⁴¹⁾

張尙賢은 上疏를 통해 盛京 일대의 인구 부족과 城堡의 파손을 우려하며 ‘根本之地’를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遼東招民開墾令이 실시된 지 8년이나 흘렀는데도 성경지역의 황폐화 정도는 그렇게 개선되지 못했던 것이다.⁴²⁾ 더군다나 중국본토의 거둬드는 동란도 盛京 지역의 빠른 회복을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661년 12월에 左都御史 닝구리Ningguri(寧古禮)는 直隸의 각성에서 도적이 기승을 부리는데도 관병이 이를 저지하지 못하여 계속해서 원병을 요청하는 행태를 탄핵한 바 있다.⁴³⁾ 이처럼 清朝는 정복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치안 확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병력을 증원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入關 후 성경지역에서 차출한 군병

41) 張尙賢 「根本形勢疏」: “竊惟天下大勢, 京都者, 猶人之腹心, 盛京者, 猶木之根本也. 今腹心久已壯實, 根本尚然空虛, 臣繪圖進呈, 為國家久遠之計. …… 以內而言, 河東城堡雖多, 皆成荒土, 獨奉天·遼陽·海城三處, 稍成府縣之規, 而遼·海兩處, 仍無城池. 如蓋州·鳳凰城·金州, 不過數百人, 鐵嶺·撫順, 惟有流徙諸人, 不能耕種. 又無生聚, 隻身者, 逃去大半, 略有家口者, 僅老死此地, 實無益於地方, 此河東腹裏之大略也. 河西城堡更多, 人民稀少, 獨寧遠·錦州·廣寧, 人民湊集, 僅有佐領一員, 不知於地方如何料理, 此河西腹裏之大略也. 合河東河西之腹裏觀之, 荒城廢堡, 敗瓦頽垣, 沃野千里, 有土無人, 全無可恃, 此內憂之甚者. 臣朝夕思維, 欲弭外患, 必當籌畫隄防, 欲消內憂, 必當充實根本, 以圖久遠之策.”(『文編』卷80, 兵政11); 『聖祖實錄』卷2, 順治18年 5月 丁巳條에도 同文이 실려 있으나 글자에 異同이 있다.

42) 이런 까닭에 遼東招民開墾令의 효과에 관해서는 일찍부터 연구자들 사이에 견해가 갈려 왔다. 예를 들면 矢野仁一, 『滿洲近代史』, 제1장과 管東貴, 「清初遼東招墾授官例의效果及其被廢原因의探討」, 『歷史語言研究所集刊』44-2는 遼東招民開墾令의 시행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반면에, 稻葉岩吉, 『滿洲發達史』(增訂版), 305~310쪽은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했다고 보고 있다.

43) 『聖祖實錄』卷5, 順治18年 12月 庚午條.

은 바로 여기에 충당되었으리라 추측된다.

張尙賢은 뒤이은 上奏에서 根本之地의 충실을 위해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현재까지 흘러들어온 流民의 숫자가 이미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入籍되지 않았으므로 戶口에 등록시키자고 하였다. 둘째는 죄를 지어 유배 온 자들이 工程에 참여하거나 民人을 불러 모으면 보상으로 속죄시키자고 하였다.⁴⁴⁾ 이에 따르면 盛京 지역에는 이미 상당수의 流民과 罪人이 흘러 들어왔음을 알 수 있는데, 張尙賢은 먼저 이들을 수습하여 荒地를 개간하자고 주청한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柳條邊 밖의 莊·村을 柳條邊 안으로 옮기고 山海關과 錦州 사이에 邊界를 마련하라 지시함으로써 흩어져 있는 流民의 수습을 도모하였다.⁴⁵⁾

遼東招民開墾令은 6년 뒤인 1667(康熙 6)년에 工科給事中 李宗孔의 上奏에 따라 혁파된다.⁴⁶⁾ 遼東招民開墾令이 流民의 유입을 전제로 하여 입안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는 그 목적의 달성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본토로부터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진행되었던 터라 盛京의 인구 자체는 점차 늘어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입된 인구가 流民이 되어 치안문제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있었다. 盛京으로 들어오는 流民에는 관리하기 까다로운 죄인들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罪人의 속죄를 허용하여 토목 사업과 民人 모집에 활용한 것도 치안 악화에 한 몫을 거들었다. 盛京과 寧古塔에서 반역자의 家屬이 공공연하게 買贖을 행하는가 하면, 심지어 買贖한 자들이 買贖하느라 들인 비용을 벌충하기 위하여 양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⁴⁷⁾ 이와 같이 이른바 ‘流人 문화’가 횡행함에 따라 마침내 조정에서도 1663(康熙

44) 『聖祖實錄』 卷5, 順治18年 12月 甲寅條.

45) 『聖祖實錄』 卷5, 順治18年 12月 壬申條.

46) 『聖祖實錄』 卷23, 康熙6年 7月 丁未條.

47) 『聖祖實錄』 卷12, 康熙 3年 7月 己亥條.

2)년 盛京刑部에 관원을 대폭 증설하여 치안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⁴⁸⁾

IV. 康熙帝의 撤藩 논의와 盛京地域 生計問題

이처럼 盛京 지역에서 통치체제의 재정비가 시행되는 동안 중국본토의 사정은 어떠했을까. 大清 정권이 만주인 황제의 舊明領 지배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이상, 중국본토의 동향은 盛京 지역 통치와 따로 떼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大清이라는 국가체제 속에서 긴밀하게 연동될 수밖에 없는 구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盛京 지역 통치와 중국본토 지배가 어떻게 맞물리며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었는지를 각 지역의 고립된 관점이 아니라 大清 정권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入關 후 大清 정권이 맞닥뜨린 긴요한 과제는 反清 세력을 대표하는 南明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이 明의 降將들이었다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吳三桂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는 陝西와 四川에 進駐하고 있다가 南明의 마지막 정권인 桂王 세력을 雲南과 貴州 등지에서 차례대로 격파하여 마침내 그 명맥을 단절시켰다. 이와 같은 漢人降將의 활약으로 중국본토의 정복사업을 완수한 大清 조정은 이들의 전공을 치하하며 吳三桂를 平西親王에 책봉하고 雲南을 진수토록 하였다. 한편 尚可喜와 耿仲明도 福建과 廣東 일대에서 南明 정권과 일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도중에 耿仲明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 耿繼茂가 이

48) 『聖祖實錄』卷10, 康熙 2年 12月 丙辰條.

어받아 尙可喜와 협력하여 토벌작전을 수행하였다. 이후 尙可喜와 耿繼茂도 전공을 인정받아 각각 平南王과 靖南王에 봉해지고 각각 廣東과 福建에 진수케 하였다. 平西親王 吳三桂와 平南王 尙可喜와 靖南王 耿繼茂는 이후 三藩으로 불리게 된다.

大清의 王爵 제도는 王에게 토지를 분봉하지 않을뿐더러 황제의 명을 받아 군대를 거느리고 출병했을 때에도 임시적으로 군사지휘권을 부여하는 까닭에 작전이 종료되면 곧바로 수도로 귀환하여 지휘권을 반납해야만 하였다.⁴⁹⁾ 그러나 大清은 중국본토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吳三桂를 비롯한 藩王들을 그대로 각지에 주둔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결과 三藩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여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어 세수·인사·무역 등을 비롯한 民政 사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세습적인 군대를 보유하면서 淸朝로부터 막대한 군비까지 제공받는 특혜를 누렸다.⁵⁰⁾ 물론 大清이 정복지역의 원활한 통치를 위해서는 三藩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장차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수립해 나갈지가 漢地 지배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기준점이 된다고 할 수 있었다.

大清 국가와 三藩 세력 간의 불협화음은 三藩 세력의 철수, 즉 撤藩을 둘러싼 논쟁이 조정 내부에서 벌어지면서 발생하였다. 그 계기는 1673(康熙 12)년 尙可喜의 奏請에서 시작되었다. 尙可喜는

49) 大清 정권의 이와 같은 군대운용 원칙과 그 이유에 관해서는 谷井陽子, 『淸朝漢地 征服考』, 109~112쪽이 적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50) Kessler, Lawrence D, *K'ang-Hsi and the Consolidation of Ch'ing Rule, 1661-168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pp. 74~136; 劉鳳雲, 『淸代三藩研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4, 87~175쪽 등 참조. 다만 三藩이 주둔지역에서 누린 특권은 神田信夫가 누차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 것이 아닌, 어디까지나 藩王 개인의 실력에 의한 것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神田信夫, 『平西王吳三桂の研究』, 192~243쪽과 同, 『三藩の富強の一側面』, 『淸朝史論考』, 山川出版社, 2005, 244~259쪽(原載 『駿台史学』 5, 1955) 참조.

신의 나이 일흔으로 정력이 이미 쇠진하여 遼東으로 돌아가 늙기를 바라는 데, 예전에 하사해 주신 地畝와 房舍는 그대로 지급해 주십시오. 신이 거느리는 두 니루의 甲兵과 平南藩 예하의 閑丁·고아·과부·노약자를 헤아리면 모두 4,394家이며 남녀로 합계하면 24,375명입니다. 遼東으로 돌아가는 길에 필요한 夫役과 口糧은 해당 부서에 勅書를 내리셔서 발급해주시기를 청하나이다.⁵¹⁾

라 하면서 平南王의 직위를 장자인 尙之信이 세습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康熙帝는 尙可喜의 공적을 치하하면서 그 예하의 官兵과 家口를 어디로 옮겨서 安插할 지에 대해 議政王·大臣이 戶部·兵部와 논의하여 上奏하라고 지시하였다. 吏部에서는 藩王이 생존했을 때 자식이 물려받은 예가 없으니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면서 尙可喜의 奏請을 거부하였다.⁵²⁾ 한편 兵部에서는 尙可喜 귀환 후 平南藩에 소속되어 있던 官兵은 廣州府에 그대로 체류시켜서 廣東提督의 관할을 받도록 題本을 올렸다.⁵³⁾ 마지막으로 議政王大臣들은 尙可喜의 遼東 귀환을 승인하였는데도 平南王 예하의 官兵을 그대로 福建에 둔다면, 이는 父子·兄弟·宗族을 떼어놓는 일이라는 근거를 들어 尙之信의 承襲을 거부하였다.⁵⁴⁾ 요컨대 尙可喜의 撤藩을 찬동하되 그 자식인 尙之信의 承襲은 반대했던 셈이다. 康熙帝는 각 부서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규정에 따라 平南藩의 철수가 결정되어 尙可喜의 軍權을 회수하였다.

尙可喜의 遼東 귀환과 平南藩의 철수가 전해지자 平西王 吳三桂와 靖南王 耿精忠은 고뇌에 빠졌다. 尙可喜에 대한 조정의 처결로 본다면 나머지

51) 『聖祖實錄』卷41, 康熙12年 3月 壬午條: “平南王尙可喜疏言。臣年七十, 精力已衰, 願歸老遼東, 有舊賜地畝房舍, 乞仍賜給。臣量帶兩佐領甲兵, 並藩下閑丁孤寡老弱, 共四千三百九十四家, 計男婦二萬四千三百七十五名口。其歸途夫役口糧, 請敕部撥給。”

52) 『聖祖實錄』卷41, 康熙12年 3月 辛卯條.

53) 『聖祖實錄』卷42, 康熙12年 4月 甲辰條.

54) 『聖祖實錄』卷41, 康熙12年 3月 丁酉條.

변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질 것은 자명하였기 때문이다. 尙可喜의 撤藩 요청은 이렇듯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고민 끝에 吳三桂도 동년 7월에 다음과 같이 上奏하였다.

신이 雲南에 주둔할 때 소속 官兵과 家口의 이동은 康熙 원년에 시작되어 康熙 3년에 마쳤습니다. 비록 家口가 雲南에 당도한 지가 9년이요 신이 몸소 이 벽지에 머무른 것도 벌써 16년이지만, 생각건대 신이 대대로 天恩을 받아 불철 주야 노력해도 보답하기가 난망한지라 오로지 藩籬에서 완전히 초췌해지기를 기약하였으니 어찌 감히 갑작스레 직무를 내려놓기를 바랐겠습니까. 지금 듣건대 平南王 尙可喜가 진정을 진술하는 上疏를 올려 이미 皇上의 은혜로운 보살핌을 입어서 平南藩 전체를 철수하기로 인준하셨다 하니, 우러러 皇上의 큰 자애로움에 의지하여 皇上의 판단을 거슬러 [신의 平西藩도] 철수하여 安插시켜 주시기를 청하나이다.⁵⁵⁾

이처럼 吳三桂는 大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표현하면서 邊方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일찍 은퇴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였다. 아울러 撤藩의 요청은 스스로 원하는 바가 아니라 尙可喜를 따라 사양하는 것임을 완곡하게 표현하였다. 그러나 康熙帝는 尙可喜가 요청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雲南이 이미 안정되었으니 平西王 예하의 官兵과 家口를 어디로 安插할지를 議政王·大臣 등은 戶部·兵部와 논의하여 上奏하도록 지시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三藩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던 吳

55) 『聖祖實錄』卷42, 康熙12年 7月 庚午條:“平西王吳三桂疏言, 臣駐鎮滇省, 臣下官兵家口, 於康熙元年遷移, 至康熙三年遷完. 雖家口到滇九載, 而臣身在岩疆, 已十六年. 念臣世受天恩, 捐糜難報, 惟期盡瘁藩籬, 安敢違請息肩. 今聞平南王尙可喜, 有陳情之疏, 已蒙恩鑒, 准撤全藩, 仰恃鴻慈, 冒幹天聽, 請撤安插.”

56) 『聖祖實錄』卷42, 康熙 12年, 7月, 庚午條.

三桂가 撤藩을 요청하자 淸 조정에서는 撤藩을 다른 지역으로 점차 확대시켜 나갔다. 廣東都御史 鞠珣은 廣西의 孫延齡이 직무에 태만하고 인사를 제멋대로 한다며 탄핵하면서 孫延齡은 北京으로 돌려보내고 그 휘하 장병은 그대로 체류시키라 진언하였다.⁵⁷⁾ 상황이 이렇게 되자 耿精忠도 어쩔 수 없이 撤藩을 요청하면서 尚可喜·吳三桂와 마찬가지로 遼東으로 돌려보내 安插시켜 주기를 奏請하였다.⁵⁸⁾ 康熙帝는 기다렸다는 듯이 耿精忠의 撤藩을 바로 승인하여 수하 관병을 거느리고 遼東으로 옮겨가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孫延齡이나 耿精忠과는 달리 吳三桂의 撤藩을 둘러싸고 조정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議政王大臣은 吳三桂의 撤藩과 관련하여 두 가지 상반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撤藩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吳三桂가 문서를 갖추어 정식으로 撤藩을 요청하였으니 吳三桂 자신과 소속 관병·가구를 모두 山海關 밖에 安插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撤藩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吳三桂가 雲南에 鎮守한 이래 지방이 평정되고 반란의 조짐도 없는데, 撤藩을 하게 되면 지방민이 이주사업에 동원되어 고초를 겪으므로 굳이 撤藩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康熙帝는 吳三桂가 撤藩을 요청하는 언사가 간절하므로 휘하의 官兵·家口와 함께 遼東으로 이주하도록 명령하였다.⁵⁹⁾

康熙帝는 吳三桂의 撤藩을 승인하기는 하였지만, 撤藩을 반대한 측에서 우려한 사안, 즉 三藩을 이주할 때 발생하는 民生의 피해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았다. 康熙帝는 관련부서로 하여금 후속대책을 강구하라 지시하였는데, 특히 兵部에는 三藩의 이주와 관련된 지방 사무와

57) 孫延齡은 본래 定南王 孔有德 휘하의 標員이었는데, 孔有德이 전사하자 그의 딸인 孔四貞과 혼인하여 定南王의 부대를 승계하였다. 『聖祖實錄』 卷42, 康熙12年, 7月, 甲戌條 및 『四王合傳』 「定南王孔有德傳」 참조.

58) 『聖祖實錄』 卷42, 康熙12年, 7月, 丙子條.

59) 『聖祖實錄』 卷43, 康熙 12年, 8月, 癸卯條.

兵馬의 배치 문제에 신경 쓰도록 당부하였다. 이를 위해 大臣 1명씩을 각각 파견하여 어디에 관병을 배치해 지방을 방어할지에 대해 해당 번을 비롯한 총독·순무·제독과 협의토록 하였다.⁶⁰⁾ 三藩을 성경지역 어디로 安插시킬지도 중요한 사안이었다. 康熙帝는 戶部에 諭示하여 三藩과 그 官兵·家口를 安插할 지방을 물색하고 여기에 필요한 가옥·토지 등의 항목을 준비하여 이주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하였다.⁶¹⁾ 이와 같이 康熙帝는 인력과 물자를 동원하여 신속하게 三藩 세력을 성경지역으로 安插함으로써 撤藩을 마무리 짓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여 徹藩과 관련된 논의가 盛京 지역 통치와 맞물리며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大清 조정이 三藩을 安插시킬 盛京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술했듯이 清朝는 피폐해진 盛京 지역을 부흥하기 위해 招民開墾 정책을 추진하여 중국본토의 流民을 불러 모아 정착시키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三藩이 보유한 병력과 기술은 상당한 규모였으리라 짐작되는데, 이처럼 대규모의 인원을 한꺼번에 성경지역에 이주시킨다면, 아직 이 지역에서 생계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流民들이 곤경에 처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陝西道御史 張冲翼의 上奏文을 통하여 그 일단을 살펴볼 수 있다.

각 藩을 安插할 지방에 대해서는, 部臣을 보내 盛京侍郎과 府尹이 회동한 뒤 三藩을 安插할 지방을 한데 아울러 조사하여 갖추어 上奏하라는 聖旨를 받들었습니다. 部臣이 명을 받들어 날짜를 잡아 스스로 마땅히 자세하게 헤아리고 상세하게 밝혀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하나 제자리를 잡게 하여 藩의 군대를

60) 『聖祖實錄』卷43, 康熙 12年, 8月, 丙午條.

61) 『聖祖實錄』卷43, 康熙 12年, 8月, 乙卯條.

安插시킨다면, 安插은 가능할 터이나 民人을 구휼하는 방도는 아직 언급되지 않은 듯합니다. 대저 山海關 밖 일대의 地畝는 대부분 流移를 불러들여 여러 해 充發하여 戶口에 편입시킨 뒤 점차적으로 개간한 일과 관련되니, 小民이 여분의 황무지를 좇다가 천신만고로 조금이나마 樂業이 있었습니다. 三藩의 官兵과 家口가 별이 퍼지고 구름이 몰리듯 이 지역에 들어온다면 그 사이에 터럭만큼의 여유도 없을 터인데, [皇上께서] 民地를 三藩의 官兵과 家口에게 모두 다 되돌리지 않으려 하시더라도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가련한 백성들이 겨우 일 어섯건만 하루아침에 뒤엎어 本業을 잃게 하신다면 어찌 赤子를 외로이 의지할 데 없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臣이 청하오니 勅書를 部臣에게 내려 府尹과 회동한 뒤, 미리 따로 좋은 땅을 뽑아다가 窮民에게 발급하거나 科則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소와 종자를 헤아려 대출해준다면 民人의 구휼을 도와 皇上의 仁을 넓힐 것입니다.⁶²⁾

張冲翼의 상소는 조정에서 三藩을 安插하는 안건에만 주목한 나머지 盛京 지역에서 거주하는 民人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招民開墾 정책에 따라 山海關 밖 일대에 정착시킨 民人들이 이제 겨우 살만한 터전을 마련하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三藩을 이주시킨다면 民人들이 모두 本業을 잃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三藩이 정식으로 이주하기 전에 部臣을 파견하여 미리 대비할 필요가

62) 張冲翼, 「遷移藩旅」: “至各藩安插地方, 奉有着部臣, 前往會同盛京侍郎·府尹, 將安插三藩地方, 一併察看, 具奏之旨. 部臣奉命, 區畫之日, 自當相度詳晰, 俾令一一得所, 其安插藩旅者, 則得矣, 而其所以恤民者, 似亦未之及也. 盖山海關外一帶地畝, 多係招徠流移, 與累年充發入口漸次開墾, 小民從荒蕪之餘, 萬苦千辛, 稍有樂業. 三藩官兵家口, 一到星布雲屯, 間不容髮, 欲不盡將民地歸併, 無由也. 嗟爾瘡痍甫起, 一旦轉徙失業, 孰非赤子, 忍令斃斃無依乎. 臣請仍勅下部臣, 會同府尹, 預為別選善地, 撥給窮民, 或多免其科則, 或量貸以牛種, 則恤民翼, 所以廣皇仁也.”(平漢英, 『國朝名世宏文』 卷二外集).

있음을 역설하였다. 張冲翼의 상소는 언제 올려 졌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다가 실록 상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제 그의 주청이 승인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다만 大清 조정에서도 三藩의 이주가 성경지역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실록에 수록된 다음의 기사를 통해서 張冲翼의 상소가 撤藩 정책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戶部侍郎 다두Dadu(達都)에게 명하여 먼저 나아가 盛京 戶部侍郎·奉天府 府尹과 회동하여 三藩을 安插시킬 지방을 살펴보게 하면서 다음과 같이 諭示 하였다. “너희들이 나아가 조사할 때에 무릇 빈민이 수고하여 개간한 토지와 가옥은 구태여 살필 필요가 없다. 이미 주둔하고 있는 官兵의 범위 내의 가옥과 토지를 제외하고 이미 개간된 토지·皇莊·馬厰 및 왕·대신·侍衛 등의 莊田과 가옥 그리고 비어있는 땅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 조사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조사에 미진함이 있다면 너희들은 곧바로 참작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하라. 山海關의 九門邊牆 바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살필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또 조사가 미진하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다른 곳의 邊牆 바깥에서도 참작하여 추가적으로 조사한 뒤 보고하라”.⁶³⁾

위의 기사는 戶部侍郎 다두가 盛京에 파견되어 三藩을 安插할 지역을 조사할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즉 빈민이 애써 개간한 토지와 가옥은 염두에 두지 말고 “이미 개간된 토지·皇莊·馬厰 및 왕·대

63) 『聖祖實錄』 卷43, 康熙 12年 8月 辛酉條: “命戶部侍郎達都, 前往會同盛京戶部侍郎·奉天府府尹, 將安插三藩地方察看, 諭曰. 爾等前往查看, 凡貧民勞苦開荒田地, 及其房屋, 俱不必看. 除駐守官兵分內房屋田地外, 有開墾田地·皇莊·馬厰, 及王與大臣侍衛等莊田房屋, 並空間之地, 務盡行查看. 此內如有不足, 爾等就近酌量查看. 至山海關九門邊牆外, 亦不必看. 此外若復不足, 爾等應於他處邊牆外, 酌量查看來奏.”

신·侍衛 등의 莊田과 가옥 그리고 비어있는 땅”을 주력하여 살피도록 제한한 것이다. 다두를 파견하는 목적이 기존에 성경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民人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비록 사료 상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陝西道御史 張冲翼의 상소가 올라갔을 때 조정에서도 관련 논의가 벌어졌으며 그 결과가 다두의 파견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더불어 “山海關의 九門邊牆 바깥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살필 필요가 없다”는 대목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성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招民開墾 정책이 山海關에서 錦州·開原까지의 지역에 역점을 두었다는 사실은 앞서 언급했던 대로다. 이 방침은 三藩을 安插할 지역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지는 기사가 보여주듯이 清朝 입장에서 邊外, 즉 柳條邊牆 바깥 지역은 이처럼 개발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었다.

어쨌든 康熙帝를 비롯하여 撤藩을 주장하던 조정 인사들은 이 사업에 대하여 뚜렷한 목적의식과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여기에는 三藩을 이주하여 정착시킬 장소가 다름 아닌 성경지역이었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盛京의 고질적인 인구 감소 문제가 北京遷都 이후 八旗의 지속적인 入關과 뒤이은 三藩의 정벌군 차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康熙帝는 三藩의 이주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그들이 성경지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康熙帝가 三藩이 撤藩과 성경지역으로의 이주를 동의하는 한에서 저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거의 승인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吳三桂가 雲南에 주둔하면서 휘하 관병과 가구가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예전에 발급받았던 山海關 밖 錦州 일대 외에 더 많은 지역을 추가해 달라고 진언하였을 때에도 康熙帝는 주저 없이 윤허하면서 “마땅히 적재적소에 安插하여 편안히 거주하게끔 함으로써 짐의 배려하는 마음에 부합하도록 하라”고 당부하였을 정도였다.⁶⁴⁾

V. 맺음말

본고에서 고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1644년 大清이 산해관을 돌파하여 明의 수도 北京에 입성하는데 성공하자 攝政王 도르곤은 北京遷都를 단행하고 八旗의 이주를 공식화하였다. 이에 따라 원래 盛京에 거주하고 있던 八旗에 소속된 旗人과 그 家屬·奴僕의 대부분이 北京으로 빠져나갔다. 그 규모는 최대 100만명에 달했으리라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漢地 정복전이 장기화되면서 大清은 吳三桂를 비롯한 漢人降將의 병력까지 본격적으로 동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결과 漢人降將 휘하의 군사와 그 家屬 약 20만명까지 추가로 빠져나감으로써 盛京 지역은 거의 모든 인구의 유출에 직면하게 되었다.

(2) 盛京은 제국이 발흥한 發祥之地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였기에 大清은 北京遷都에 발맞추어 즉각적으로 盛京 지역의 지배체제를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먼저 盛京을 陪都로 지정한 뒤 留守 부대인 駐防을 설치하고 그 사령관으로서 盛京將軍을 개설하였다. 盛京將軍이 盛京 일대의 駐防에 소속된 旗人을 관할하였다면, 행정단위로서는 설치된 府·州·縣에서 民人을 통치하는, 이른바 旗民制가 실시되었다. 또한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하여 ‘遼東招民開墾令’을 반포하였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고, 戶籍에 등재되지 않은 流民이 급증하며 치안문제가 대두하게 된 것이다.

(3) 중국 본토로 진군한 漢人 출신 降將들은 反清 세력을 토벌한 공적을

64) 『聖祖實錄』 卷44, 康熙 12年 11月 己巳條. “平西王吳三桂疏言. 臣部下官兵家口, 三十年來, 蒙恩蒙養, 生齒日衆. 懇將賜撥安插地方, 較世祖章皇帝時, 所撥關外至錦州一帶區處, 更加增廓. 庶臣部下官兵, 均沾浩蕩之恩矣. 得旨. 王所屬官兵家口, 遷移遠來. 自應安插得所, 俾有寧居, 以副朕懷. 此所請增賞地方, 著速議具奏.”

인정받아 藩王에 봉해져 이후 三藩이라 불리며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다. 平南王 尚可喜가 주둔지인 廣東을 떠나 盛京 지역으로 돌아가기를 청하는 上奏를 올린 것을 계기로 三藩의 동향은 盛京 지역과 다시 긴밀하게 맞물리게 된다. 三藩 세력이 귀환하고자 하는 지역이 盛京 일대였기 때문에 徹藩論의 핵심 의제는 三藩과 같은 대규모 집단의 이주를 승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盛京 지역의 生計 문제에 집중되었다. 즉 遼東招民開墾令과 같은 정책을 통하여 불러 모은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새롭게 이주할 三藩 세력에 의해 빼앗길 우려가 조정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종래 入關 후 大清 국가의 만추리아 정책은 지역사적 혹은 변경사적 관점에서 고립적·단선적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본고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만추리아, 그중에서도 특히 盛京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大清의 초기 정책은 漢地 지배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 제국의 發祥之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明代에도 이 지역에는 遼東都指揮使司, 즉 遼東都司가 설치되어 이민족의 招撫나 朝鮮과의 通交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盛京將軍과 遼東都司의 결정적인 차이는, 전자가 제국의 發祥之地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 중앙정부의 정책시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반면에, 후자는 어디까지나 군사거점으로서 邊境의 안정이라는 실용적 목적에 중점이 놓여 있었다는 데 있다. 이는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明代와 清代의 위상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大清의 만추리아 지배와 그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와 같은 지역사적 혹은 변경사적 이해에서 벗어나 大清의 제국 경영이라는 전체적인 안목 하에서 조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Abstract]

The Transfer of the Capital to Beijing by the Qing Empire and
Mukden Area

Lim, Gyung-jun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Qing empire in Manchuria after the Transition from Ming to Qing(明清交替),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gion of Mukden.

In 1644, as soon as the Qing empire passage through Shanhaiguan and occupied Beijing, the capital of Ming dynasty, immediately transfer the capital from Mukden to Beijing. At the same time, the Eight Banners and their families moved to Beijing, and it is estimated that the total number of relocated peoples had reached 1 million. As a result of the army led by Chinese military leaders and their families entering China proper, Mukden was in a situation where almost all of its residents disappeared at once.

For Manchus, Mukden meant the cradle of Qing empire. Therefore, when Qing transfer the capital from Mukden to Beijing, it immediately began to reorganize the ruling system in Mukden region. After designating Mukden as a secondary capital city, Qing set up garrisons of skeleton force and appointed ‘general of Mukden(盛京將軍)’ as the commander. In order to repopulate the region of Mukden and restore its land economy, in 1653 Qing issued the edict for repopulation and wasteland cultivation of Liaodong(遼東招民開墾令). Despite such a poli-

cy, its effect was limited. On the contrary, the number of so-called 'wandering peoples(流民)' who were not registered on the registry, increased rapidly, causing security problems.

Furthermore, Shang Kaxi(尙可喜), who was stationed in Guangdong, asked for permission to retire, the movement of the Three Feudatories became closely related to the region of Mukden. This was because the Three Feudatories return from southwestern China to Mukden. The debate in the Qing imperial court over the return of the Three Feudatories to Mukden, was concerned with socio-economic issues in the Mukden area. The Qing was concerned that the return of the Three Feudatories with a huge population might cause a conflict with residents who had newly settled in the area of Mukden.

Based on the above, we can say that th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Qing in Mukden region was not closely related to rule China proper, but the symbolic meaning that the region was the cradle of Qing empire had an important influence.

□ Keyword

Qing empire, Manchus, Mukden, the edict for repopulation and wasteland cultivation of Liaodong, the Three Feudatories

[참고문헌]

1. 史料

- 『世祖實錄』 = 『大清世祖章皇帝實錄』 국사편찬위원회DB.
- 『成祖實錄』 = 『大清聖祖仁皇帝實錄』 국사편찬위원회DB.
- 『仁祖實錄』 = 『仁祖大王實錄』 국사편찬위원회DB.
- 『文編』 = (清) 賀長齡等編 『清經世文編』 影印本, 全3冊, 北京: 中華書局, 1992.
- 『冷廬雜識』 = (清) 陸以湉撰 『冷廬雜識』 点校本, 北京: 中華書局, 1984.
- 『康熙盛京通志』 = (清) 伊把漢等纂, 『盛京通志』 刊本, 康熙23年刊, 京都大學附屬圖書館 近衛文庫藏.
- 『欽定盛京通志』 = (清) 王河等修 『欽定盛京通志』 (中國邊疆叢書) 影印本, 全4冊, 臺北: 文海出版社, 1965.
- 『初集』 = 『八旗通志初集』 点校本, 全8冊, 長春: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5.
- 『四王合傳』 = 佚名撰 『吳耿尚孔四王合傳』 (『明清史料叢書八種』 第1冊) 影印本, 北京: 北京圖書館出版社, 2005.
- 『國朝名世宏文』 = (清) 平漢英輯 『國朝名世宏文』 (『四庫未收書輯刊』 史01輯 22冊) 影印本, 北京: 北京出版社, 2000.
- 『康熙雲南通志』 = (清) 范承勳等纂 『雲南通志』 (『中國地方志集成』 省志輯·雲南1-2) 影印本, 全2冊, 南京: 鳳凰出版社, 2009.
- 『平定三逆方略』 = (清) 勒德洪等奉敕撰 『平定三逆方略』 (『臺灣文獻史料叢刊』 104第6輯) 臺北: 臺灣銀行, 1970.
- 『天聰八年檔』 = 『内国史院檔 天聰八年』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譯註, 全2冊, 財團法人東洋文庫, 2009.
- 『大清全書』 = (清) 沈啓亮輯 『大清全書』 影印本,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8.

「和碩怡親王允祥等奏爲查報順康年間八旗男丁數目事本」[雍正元年6月4日]
 = 中國第一歷史檔案館[1988]「清初編審八旗男丁滿文檔案選譯」『歷史檔案』1988-4, p. 11; 安雙成[1992]「順治朝八旗男丁滿文檔案選譯」『滿學研究』1, pp. 429-430.

2. 韓國語 문헌

구범진, 「清代 ‘滿洲’지역 행정체제의 변화: ‘駐防體制’에서 ‘州縣體制’로」,
 『동북아역사논총』14, 2006.

김선민, 「옹정제의 盛京지역 통치」, 『明清史研究』34, 2010.

박민수, 「攝政王 도르곤의 北京 점령과 遷都의 실행」, 『明清史研究』48,
 2017.

박민수, 「清的 北京 遷都와 만주의 北京 移住」, 『明清史研究』51, 2019.

유지원, 「‘봉금’ 그리고 이민과 개발」, 同編 『이민과 개발:한중일 삼국인의
 만주 이주의 역사』(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49), 동북아역사재단,
 2011.

이훈, 「청대 건륭기 만주족의 根本之地 만들기: 京師 旗人の 이주와 만주의
 封禁을 중심으로」, 『史叢』72, 2011.

3. 漢語 문헌

郭松義, 「清代社會變動和京師居住格局的演變」, 『清史研究』2012-1.

管東貴, 「清初遼東招墾授官例的效果及其被廢原因的探討」, 『歷史語言研究所
 集刊』44-2, 1972.

滕紹箴, 「清代“三藩”旗籍研究」, 『明代女真與滿洲文史論集』, 瀋陽: 遼寧民族
 出版社, 2012(原載: 『蒙元史暨民族史論集』,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6).

常江·李理, 『清宮大內侍衛』, 北京: 故宮出版社, 2013.

安雙成, 「順康乾三朝八旗丁額淺析」, 『歷史檔案』1983-2.

- 劉鳳雲, 『清代三藩研究』,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1994.
- 劉小萌, 『清代北京旗人社會』,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 李國亮·何世杰, 「清初遼東招墾史研究狀況分析」, 『蘭臺世界』 2008-12下半年.
- 李治亭主編, 『東北通史』,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3.
- 任桂淳, 『清朝八旗駐防興衰史』 北京: 三聯書店, 1993.
- 張杰·張丹卉, 『清代東北邊疆的滿族:1644-1840』,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5.
- 張士尊, 『清代東北移民與社會變遷:1644-1911』,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003.
- 張晉藩·郭成康, 『清入關前國家法律制度史』, 瀋陽: 遼寧人民出版社, 1988.
- 叢佩遠, 『中國東北史 第四卷』,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8.

4. 日本語 문헌

- 谷井陽子, 「清朝漢地征服考」, 小野和子編 『明末清初の社會と文化』,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96.
- 谷井陽子, 「ニルの構成と運營」, 『八旗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5(原載: 『天理大學學報』 223, 2010).
- 谷井陽子, 『八旗制度の研究』 京都: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015.
- 磯部淳史, 「太宗·順治朝におけるグサ=エジェンとその役割」, 『清初皇帝政治の研究』, 京都: 風間書房, 2016(原載: 『滿族史研究』 9, 2010).
- 楠木賢道, 『清初対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東京: 汲古書院, 2009.
- 稻葉岩吉, 『滿洲發達史(增訂版)』, 東京: 日本評論社, 1935(初版: 大阪屋號出版, 1915).
- 杉山清彦, 「清初侍衛考」, 『大清帝國の形成と八旗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2015(原載: 『東洋史研究』 61-1, 2003).
- 松浦 茂, 「天命年間の世職制度について」, 『東洋史研究』 42-4, 1984.

- 松浦 茂, 「ヌルハチ[清・太祖]の徙民政策」, 『東洋学報』 67-3・4, 1986.
- 中見立夫[1993]「地域概念の政治性」『「滿蒙問題」の歴史的構圖』東京大學出版會, 2013(原載:『交錯するアジア(アジアから考えるI)』東京大學出版會, 1993).
- 中見立夫, 「東北/北東アジアはどのように、とらえられてきたか:歴史認識における地域概念の問題」, 『「滿蒙問題」の歴史的構圖』東京大學出版會, 2013(原載:『北東アジア研究』7, 2004).
- 増井寛也, 「清初ニル類別考」, 『立命館文學』 608, 2008.
- 塚瀬 進, 『マンチュリア史研究:「滿洲」六〇〇年の社会変容』, 東京: 吉川弘文館, 2014.
- 細谷良夫, 「後金國・清朝に來歸した漢人の様相」, 『中国:社会と文化』 2, 1987.
- 矢野仁一, 『滿洲近代史』, 東京: 弘文堂, 1941.
- 神田信夫, 「平西王吳三桂の研究」, 『清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2005(原載:『明治大學文學部研究報告 東洋史 第2冊』, 明治大學文學部文學研究所, 1952).
- 神田信夫, 「三藩の富強の一側面」, 『清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2005(原載:『駿台史学』5, 1955).
- 神田信夫, 「滿洲 (manju) 国号考」, 『清朝史論考』, 東京: 山川出版社, 2005(原載:『山本博士還曆記念東洋史論叢』, 山川出版社, 1972).

5. 英語 문헌

- Elliott, Mark C, "The Limits of Tartary:Manchuria in Imperial and National Geograph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9-3, 2000.
- Elliott, Mark C, *The Manchu Way: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한국어역: 이훈·김선민 역, 『만주족의 청제국』, 서울: 푸른역사, 2009).

Kessler, Lawrence D, *K'ang-Hsi and the Consolidation of Ch'ing Rule, 1661-168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6.

Lee, Robert H. G, *The Manchurian frontier in Ch'ing history* (Harvard East Asian series 43),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Isett, Christopher M, *State, peasant, and merchant in Qing Manchuria, 1644-1862*,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7.